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에서의 공유경제 기반 플랫폼 진출 방향을 위한 사례연구 : 공유경제 큐브 모델을 적용하여 (사례연구)



2018년 8월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에서의 공유경제
기반 플랫폼 진출 방향을 위한 사례연구
: 공유경제 큐브 모델을 적용하여”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연 구 주 관 :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연 구 기 간 : 2018. 04. ~ 2018. 08. (5개월)

연 구 자 : 원 종 벽

지식서비스연구소장 귀하

* 본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컨설팅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터 사업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 목 차 >

I. 서론

- 01. 연구 배경 및 목적
- 02. 선행 연구
 - 02-1. 공유경제
 - 02-2. 플랫폼 비즈니스
 - 02-3. 공유경제를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필요성
- 03. 이론적 배경: 공유경제 큐브 모델

II. 공유경제 기반 의료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 01. 사례 분석
 - 01-1. 해외 사례
 - 01-1-(1) 원격 진료: 춘위이성(春雨醫生)
 - 01-1-(2) 왕진 방식: 힐(Heal)
 - 01-2. 국내 사례 : 온종합병원
- 02. 분석 결과

III. 국내 의료 서비스 산업 내 플랫폼 진출 방향성 설정

- 01. 객체: 국내 환경에 맞춘 ‘원격진료’와 ‘인간 및 관계’의 공유
- 02. 주체: 니즈를 공략한 수요 집단 형성
- 03. 방향성 종합

IV. 결론

V. 참고문헌

I. 서론

01. 연구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 혁명이 언급되면서부터 세계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모델이 일명 ‘파이프라인(Pipeline)’ 형태에서 ‘플랫폼(Platform)’ 형태의 비즈니스로 변화되었다. 또한 4차 산업의 기술력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및 CPS(Cyber Physical System, 가상물리시스템)의 발전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즉, 온라인 플랫폼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출현은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만들었으며, 소비자의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관하여 저널리스트 ‘제이슨 탠즈(Jason Tanz)’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였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의 자동차에 올라타고, 남는 방으로 낯선 이들을 맞아들이며, 반려견을 낯선 이들의 집에 맡기고, 낯선 이들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 우리는 또 그들에게 우리 자동차와 배, 우리 집과 우리가 쓰는 각종 도구들을 빌려준다. 우리는 생판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귀중품과 개인적 경험, 나아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맡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터넷이 만들어 준 새로운 친밀감의 시대로 들어선다.”

이 말은 오늘날 플랫폼 비즈니스는 신뢰 구축 기반의 메커니즘을 갖추었고, 이를 활용하여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남의 것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공유’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경제의 형태를 가리켜 ‘공유경제’라고 칭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폐해의 대책으로 등장하였으며, 4차 산업의 초연결사회로 들어서면서 연결 비용의 감소와 공유를 통한 효용이 소유를 통한 효용을 넘어서면서 급부상하였다. 창조경제연구회(KCERN)에서 2017년에 작성한 보고서 ‘산업혁명과 산업플랫폼’에서는 이제 공유경제가 미래사회의 경제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선구자적 역할 또는 성공적인 공유경제를 실현시킨 사례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공유경제가 실현된 선진 국가의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들어와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된 것들이 다수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목표 산업으로는 보스턴 대학 교수 마셜 밴 앨스타인(Marshall W. Van Alstyne)이 그의 저서 ‘플랫폼 레볼루션(Platform Revolution)’에서 제시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산업 가운데, 본 논문은 ‘의료 서비스’산업을 목표 산업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탐색적 연구로써 본 논문에서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국내 의료 서비스 산업에 진출할 경우 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02. 선행 연구

02-1. 공유경제의 개념과 의의

공유경제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개인의 유희 자원 또는 자산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과 비즈니스에서 각기 다른 시선으로 공유경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민 외 2명(2016) 그리고 계승균(2018)의 내용을 보면, 공유경제의 이론적 배경은 2004년 Y.Benkler의 저서 “Sharing Nicely : On Shareable Goods and the Emergence of Sharing as a Modality of Economic Production”에서 ‘공유행위(Sharing Practices)’가 사회 전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등장한다. 이후 공유경제라는 단어는 2008년 하버드 대학 교수 Lawrence Lessig의 저서 “Remix :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에서 최초로 등장했으며, 공유경제를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생산과 소비에 기반을 둔 상업경제와 달리 이미 생산된 제품을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하는 형태로써 다양한 사회관계에 의해 조율되는 경제라고 설명되었다. 뒤이어 Botsman and Rogers(2011)는 공유경제를 ‘공동체와 같은 집단을 형성하여 공유하는 활동이 협업과 커뮤니티 속에서 녹아있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또는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라고 정의하며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반면, Giana M. Eckhardt & Fleura Bardhi(2015)는 공유경제가 의미하는 내용은 소비자에게 비용 효율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특정 기간 동안 타인의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이므로 이는 ‘공유’라는 확립된 관행적 개념을 벗어나기 때문에 ‘접근 경제(Access Economy)’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하여 KCERN(2017)에서 해석한 ‘접근 경제’는 공유경제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공유 측면에서 설명한 개념이고 보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에서의 인간 관계의 공유에 대응될 것이라 말함과 동시에, 공유경제를 경제요소를 공유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내리고 공유 대상과 공유 주체로 나누어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에서는 공유경제가 물리적 재화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간 거래에 초점을 두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취득, 제공 및 공유하는 P2P(Peer to peer) 기반 활동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렇듯 공유경제에 관한 정의와 개념은 연구자 혹은 연구의 내용마다 각기 다르게 표현되므로 공유경제에 대하여 확립된 하나의 정의를 찾기보다는 하나의 커다란 프레임